



MVPR-2007-23

VIP REPORT

2007. 11. 30.

■ 2008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과 현안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유 병 규
편집위원 : 이부형, 홍순직, 주원, 허만울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0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2008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과 현안

Executive Summary i

2008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과 현안 1

■ HRI 경제 지표 15

2008년 국내 산업 경기는 기계 산업과 조선 산업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운, 물류, IT, 자동차 산업의 경기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건설업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기 호황 업종인 **기계 산업**은 2007년에 중동의 오일 붐, 신흥개도국의 성장 등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08년에도 기업 설비투자 회복에 따르는 내수 확대와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 시장 개척 등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수주, 수출, 건조 등 전 부문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황을 누렸던 **조선 산업**의 경우 선박 공급 과잉 우려에 따라 수주 실적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새로운 공법 및 설비 확장 등을 통해 건조량이 증가하면서 해외 인도 선박량 또한 증가하면서 경기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한편, **해운산업**은 해운선사들의 선박 대형화 등 경쟁 심화로 컨테이너선의 과잉 공급이 우려되고 있으나 중국의 두 자릿수 성장과 건설 경기의 호황, 동아시아국가들의 성장세 지속 등에 의한 벌크 부문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어 전체 업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물류 산업**은 '2007년 세계개편안' 중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2008년에 시행될 경우 제3차 물류시장의 확대로 전체 경기의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지연될 경우 전체 물류 산업 경기의 개선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IT 산업**은 유비쿼터스 제품의 생산 증가, 신흥시장의 통신 인프라 확대, 디지털 방송 수요 확대 등으로 이동통신, 반도체 등 국내 주력 IT 산업의 회복세가 기대된다. 하지만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조정 지연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요인 또한 존재한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기 회복의 가시화, 세계 경제의 성장세 지속에 따라 내·외수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질적인 노사불안과 소형차 중심의 수입 자동차 판매 증대 등 위협 요인이 가시화될 경우 경기 큰 폭의 경기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에도 여전히 **건설 산업**은 민간부문의 고강도 규제 지속이라는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경기 회복 가시화에 따르는 금리 상승은 민간 건설 경기 회복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8년 대부분의 국내 산업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애로 요인으로는 고유가, 환율 및 금리 상승 등 비용 상승에 의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또, 내·외수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나 신성장 동력 발굴 애로 등의 문제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이나 환율 하락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통해 기업 채산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강화, 新성장 동력 산업 분야 조기 시장화 전략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2008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 개요 >

(단위: 전년대비 생산 및 수출 증가율, %)

		내수	수출	생산	비고
경기 호황 업종	기계	☀	☀	☀	- 중동 오일 붐 지속, 신흥 개도국 성장 지속 - 설비투자 회복 - 고환율로 수출 채산성 악화
		11.0 → 10.6	17.5 → 18.6	12.0 → 12.1	
	조선	☹	☀	☀	- 선박 공급 초과 우려 - 새로운 건조 공법 및 설비 확장 - 고환율로 수출 채산성 악화
		35.0 → 2.2	22.2 → 11.1	10.8 → 10.2	
경기 유지 업종	해운	☀	☹☀	☹☀	- 중국 경제의 성장 지속,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성장 - 선박 과잉 현상의 가시화 지연 - 고환율 및 고유가에 의한 수익성 악화
		8.9 → 10.1	62.6 → 1.8	-25.8 → 3.5	
	물류	☹☀	-	-	-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제도 개선 효과의 가시화 - 내수부문이 소폭 개선되나 경쟁 심화 - 고유가로 인한 비용 상승
		4.6 → 5.4	-	-	
	IT	☹☀	☀	☹☀	- 신흥시장의 통신 인프라 확대 등 수요 증가 - 반도체 공급 과잉 지속 - 고환율로 수출 채산성 악화
		5.7 → 6.0	7.0 → 10.6	5.4 → 5.6	
	자동차	☹☀	☹☀	☹☀	- 세계 경제 성장세 유지 - 내수부문의 소폭 개선 - 고환율로 수출 채산성 악화 - 고유가에 의한 내수 불안 상존
		3.0 → 3.5	5.4 → 7.3	4.0 → 4.7	
경기 부진 업종	건설	☹	-	-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지속 - 금리 상승
		2.5 → 3.0	-	-	

주: 1) 산업 특성상 해운 산업의 경우 내수는 컨테이너선 시황, 수출은 건화물선 시황을, 생산은 유조선 시황을 적용하며, 물류와 건설업은 내수만 적용함. 또한 조선 산업의 내수는 수주로 대체함. 건설산업은 해외수주를 제외함.

2) ☀는 유지(증가율이 10% 이상), ☹☀는 다소 부진(증가율이 10% 이하), ☹는 부진(감소세)을 의미.

2008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과 현안

□ 2008년 주요 산업 경기 전망과 현안

1. 기계 산업

국내 기업설비 회복에 따르는 내수 확대, 중동 및 신흥개도국의 견실한 수요 증가 등으로 2008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2007년 현황) 중동의 오일 붐, 신흥개도국의 성장 등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지속
 - 중동의 오일 붐 : 고유가 지속으로 중동 지역의 플랜트 수요가 증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투자 붐에 따르는 건설 기계 등의 수요가 급증
 - 신흥개도국의 성장 : 중국을 포함한 BRICs,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세 지속으로 이 지역에 대한 수출 성장세가 지속
- (2008년 전망) 기업 설비투자 회복에 따르는 내수 확대, 중동 및 신흥개도국의 견실한 수요,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 시장 개척 등으로 2008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임
 - 2007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설비투자 회복세가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수 부문의 확대가 기대됨
 - 2008년에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동지역의 오일 붐이 지속될 것이며, 신흥개도국 경제 또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으로 기계부문의 수출 증가세 또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기계 산업 전망 >

구 분	2006	2007(E)	2008(E)
생산액(조 원)	284 (12.3)	318 (12.0)	356 (12.1)
수출액(억 달러)	965 (16.6)	1,134 (17.5)	1,345 (18.6)
수입액(억 달러)	647 (15.0)	749 (15.7)	863 (15.2)
내수 (조 원)	254 (17.1)	282 (11.0)	312 (10.6)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공제조합.

주 : 내수는 생산에서 수출을 제외하고 수입액을 합한 수치이며,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지구환경문제의 심각화, 순환형 경제의 정착 등으로 향후 각종 환경장치 수요가 증대, 에너지 개발 가속화로 인한 플랜트 수요 지속, 중동 등 산유국의 개발 붐에 따르는 건설 기계 시장 확대 등이 기대되나 선진국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각종 환경장치 수요 증대 : 지구환경문제의 심각화, 순환형 경제의 정착 등으로 향후 건설, 축산, 생활 폐기물 처리 설비 또는 기계 등 환경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태양열, 풍력, 조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 설비 등 환경장치의 수요가 증대할 전망
- 에너지 개발 관련 플랜트 수요 지속 : 카스피해, 사할린, 브라질 등 세계적인 新유전 개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에너지 개발 관련 플랜트 수요가 증대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석유화학 장치 등의 수요가 증대할 전망
- 건설 기계 시장 확대 : 지속되는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중동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한 개발 붐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 기계 시장의 확대가 기대됨
- 선진국들과의 경쟁 심화 : 한편 BRICs, CIS국가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개도국들의 급성장으로 세계 기계산업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나, 기존의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세계 기계 산업의 시장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 독일, 일본의 3대 기계산업 강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임

2. 조선 산업

2008년에도 고선가 수출 물량을 중심으로 조선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공급 초과 우려에 따라 수주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07년 현황) 호황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체가 수주, 수출, 건조 등 전 부문에서 사상 최대 실적치를 기록함
 -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수주량이 급증해 전년대비 약 35.0% 증가한 2,545만 CGT¹⁾의 수주가 예상됨
 - 특히 선가가 높은 선박들의 수출 물량 증가 효과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22.2% 증가한 27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건조량은 특별한 생산저해 요인 없이 원활하게 이어져 1,230만 CGT(전년대비 10.8% 증가) 수준을 달성할 것임
- (2008년 전망) 전반적인 실적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나 공급 초과 우려에 따라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LNG선은 아프리카, 컨테이너선은 독일 등을 중심으로 수주가 지속되면서 연간 수주량은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인 2,600만 CGT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선가가 많이 올랐던 2006년 건조 시작 물량이 수출 물량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11.1% 증가한 3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새로운 건조 공법 및 설비확장을 통해 건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1,355만 CGT(전년대비 10.2% 증가)를 무난히 달성할 것임

< 조선 산업 전망 >

	2006	2007(E)	2008(E)
수 주(만 CGT ¹⁾)	1,958(-26.6)	2,545(35.0)	2,600(2.2)
수 출(억 달러)	221(24.8)	270(22.2)	300(11.1)
건 조(만 CGT)	1,110(8.7)	1,230(10.8)	1,355(10.2)

자료 :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무역협회.

주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수출은 선박과 수상구조물(MTI 746) 기준임.

1)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 선박의 부가가치, 투입 공수(工數), 강제 소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톤수임

○ (주요 현안) 초과공급 발생 가능성 및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초과공급 발생 가능성 : 세계 조선업의 호황 국면은 경기순환상 2007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외 조선업체들의 경쟁적 설비 신증설에 따라 향후 4년간 단기적으로 상당 규모의 초과 공급 가능성이 제기됨(MSI, supply tables for ships, 2007)
 - '07년 현재 수주잔량이 선복량의 약 40% 수준인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중심의 대규모 설비 신증설은 중장기적인 수급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수년 내 선박 공급 과잉 및 운임 하락이 가시화 될 경우 불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과의 경쟁 심화 : 국내 조선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시장잠식 상황임
 - 2007년 9월말 기준 신규수주를 보면 중국이 2,170만 CGT로 한국 2,490만 CGT의 90% 수준에 근접한 상황임(Clarkson)
 - 2015년 세계 1위를 목표로 설비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조선시장에서의 한-중-일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임
- 중장기적 리스크 요인 상존 : 국내 조선업체들은 설비확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세계 경제흐름에 따라 LNG선 및 해양구조물의 수주 감소, 신용경색에 따른 선주들의 파이낸싱 부담 확대 등으로 발주량 감소 등의 리스크가 상존
 - 따라서 국내 조선업체들은 건조설비 확충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향후 조선용 후판, 인력수요 등 생산요소의 중장기적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한·중·일 조선 산업 경쟁력 비교 >

	한국	중국	일본
인력자원(노동력 원가)	10 이상	1	10 이상
원재료 가격(강재, 달러/톤)	520	400	620
건조효율	근무시간/톤	10~15	40~50
	건조능력(천CGT/m3)	13.2	5.7
기술력(설계·생산·관리, 2005년 기준)	101	72	100

자료 : 산업자원부, 현대증권 등.

3. 해운 산업

세계경제의 안정 성장을 배경으로 운임상승 등의 호재가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

- (2007년 현황) 컨테이너 운임 상승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며, 벌크 부문 또한 하반기 본격적인 곡물 출하, 주요 시장에서의 연관 산업의 정비 완료 등으로 운임 상승이 기대됨
 - 컨테이너 운임 상승 : 미주운임의 경우 5월 협상에서 서안, 내륙, 동안 모두 인상에 성공, 하반기에도 주요 노선에 있어서 운임인상이 이어질 것임
 - 벌크 업황 강세 : 2007년 하반기 곡물 출하의 본격화, 중국 등 개도국의 발전소 및 제철소의 정비 완료 전망 등 벌크 수요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임
- (2008년 전망)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으로 해운 수요 또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안정적인 벌크 수요 성장세 : 중국의 두 자릿수 성장과 건설 경기의 호황지속이 시멘트, 석탄, 철광석 등의 벌크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또한 벌크 수요 증가 원인으로 작용
 - 컨테이너선 과잉 공급 우려 : 2008년에는 2007년 선박 수의 절반 정도인 1,300척이 더 추가 될 예정

< 해운 산업 전망 >

구 분		2006	2007(E)	2008(E)
정기선(컨테이너)	운임지수(HR)	1,239.6(-32.4)	1,349.7 (8.9)	1,486.0(10.1)
건화물선	운임지수(BDI)	3,746.6 (31.8)	6,091.2 (62.6)	6,198.8 (1.8)
유조선	운임지수(WS)	101.5 (-3.0)	75.3(-25.8)	77.9(3.5)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 기간별 평균값으로,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 (주요 현안) 지역적으로 다른 운임 동향,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고유가, 환경 규제 강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선박의 투입 등의 만만치 않은 부정적 여건이 산재해 있음
 - 지역적으로 다른 운임동향 : FTA체결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시아 역내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아시아~유럽 항로의 경우 물동량이 두 자리 성장세를 보이면서 운임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서양과 태평양 항로는 상대적으로 부진
 -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고 세계 금융시장 불안을 통해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고유가로 인한 비용 증가 : 국제유가가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증대할 것임
 - 환경 규제 강화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선박의 배기가스, 밸러스트 수(Ballast Water) 배출 규제 등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임
 - 새로운 선박의 대규모 투입 : 2007년 9월 하순까지 1만 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총 94척 이상 발주되었으며 만약 이런 발주러시가 2010년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선박 과잉공급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밸러스트 수(水)에 대한 국제 협약 >

- Ballast Water Convention : IMO (국제해사기구)는 2004년 2월 13일 런던에서 Ballast Water Convention을 개최하고 해로운 수중생물과 병균이 선박들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바닷물을 이용하여 ballast 탱크를 채우거나 비우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Global Ballast Water Management Program : 최소 30개 회원국 또는 세계 총 선박톤수의 35% 차지하는 국가들이 승인한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강제 시행하기로 합의
- 발효시기 :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은 2004년 7월 28일부터 미국해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 ballast management를 실시

4. 물류 산업

2007년에는 전반적인 침체세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화주에 대한 세제 혜택 시행 예정 등으로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임

- (2007년 현황) 2007년 전체 물류시장은 제3자 물류시장의 성장세 미약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성장세를 기록
 - 제3자 물류시장 성장세 주춤 : 당초 계획되었던 화주에 대한 세제 혜택 지연 등으로 정부의 종합물류업인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화주에 대한 유인 부족으로 제3자 물류시장의 성장세가 약화
 - 택배 업체 경쟁 심화 : 동부, 신세계, 유진, 동원 등 국내 대기업의 물류시장 진입 가속, 중소 물류 업체들의 성장 등으로 택배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
- (2008년 전망) 국내 소비심리와 제3자 물류시장 성장세 회복으로 2008년 전체 물류시장은 물량 면에서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물류시장 성장세 회복 : 2008년 전체 물류시장 규모는 내수 회복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는데 그칠 것임
 - 제3자 물류 시장 확대 : '2007년 세제개편안' 중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2008년에 시행될 경우 제3자 물류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국내 물류 산업 전망 >

(단위: 조 원, %)

구 분	2004	2005(E)	2006(E)	2007(E)	2008(E)
전체 물류 시장 규모	92.5(2.4)	96.1(3.9)	100.5(4.6)	105.1(4.6)	110.8(5.4)
제3자 물류 시장 규모	27.0(E)	31.1	35.8	40.7	46.9
제3자 물류 시장 비중	29.2%(E)	32.4%	35.6%	38.8%	42.3%

- 주 1) 당해년 전체 물류 시장 규모=전년도 기업물류비*(1+경제성장률)- 당해년 제3자 물류 시장 증가 규모*물류 생산성 제고 효과
- 2) 물류 생산성 제고 효과는 제3자 물류가 자가 및 제2자 물류에 비해 8%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가정, 성장률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사용
- 3) 전체 물류 시장 규모는 교통개발연구원의 2004년 기업 물류비를 기준으로 추산, 제3자 물류 시장 비중 중 '06년, '07년은 한국무역협회 '제3자물류활용실태조사결과' 참조, 그 외 제3자 물류 시장 비중은 '06년에서 '07년의 성장이 동일하게 지속되었다고 가정하고 '2007년 세제개편안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 6,000억 원을 고려.

- (주요 현안) 비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 물류기업의 성장 등 국내 물류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新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비용 상승 압력의 증대 : 고유가 지속에 의한 차량 연료비 상승, 환경 부담 비용 증대 등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증대될 것임
 - 국내 물류시장 경쟁 심화 : 기존 빅4간 경쟁뿐만 아니라 M&A 등 통해 새롭게 경쟁력을 정비하고 시장에 뛰어든 신흥 서비스 공급자들로부터의 경쟁도 심해져 전반적으로 경쟁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임
 - 빅4간 경쟁 심화 : 현대택배, 대한통운, CJ GLS, 한진 등의 '빅4'업체들의 선두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질 것임
 - 대기업의 물류시장 참여 가속 : 동부그룹은 동부익스프레스, 동원그룹은 LOEX(동원산업의 물류부문과 동원그룹이 인수한 레스코의 합병 기업), 신세계그룹은 세텍스(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등 이미 대기업들의 물류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롯데그룹 등도 물류시장 진출을 준비 중
 - 단가 하락세 지속 :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대형 거래처 단가 인하 요구 및 업체간 경쟁 과열로 '단가 인하' 경쟁이 가열될 전망임
 - 추락하는 평균 단가 : 국내 물류업체간 경쟁 심화로 평균 단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지난 2003년 박스 당 3,400원에서 최근에는 평균 2,300원선까지 낮아짐)
 - 업체 수익성 저하 : 이로 인해 전체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단가 하락에 의한 수익성 저하가 예상됨
 -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가속 : 한진, 대한통운, CJ GLS, 한솔 CSN 등 국내 물류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임
 - 한진은 칭다오, 상하이 등 5개 중국 지역 진출, 대한통운은 홍콩, 상하이 등 6개 지역, CJ GLS는 상하이, 홍콩, 칭다오, 한솔 CSN은 상하이 등 국내 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

5. IT 산업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IT 산업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08년에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07년 현황) 미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개발국 및 일본, 유로지역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하반기 실적은 상승 추세
 - 반도체 : 5월을 기점으로 PC 경기가 회복하고 있으나, 반도체 시장은 회복세가 미약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낸드플래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급량 부진 및 애플의 주문 증가로 하반기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인 반면, D램은 하반기 들어서도 재고조정과 Upgrade 수요가 약해 가격 회복이 불확실
 - 정보통신 : WCDMA, DMB 활성화에 따른 이동전화서비스의 성장과 초고속 인터넷 및 방송서비스의 성장이 지속
- (2008년 전망) 유비쿼터스 제품 생산 증가, 신흥시장의 통신 인프라 확대, 디지털 방송 수요 확대 등으로 이동통신, 반도체, TFT-LCD 등 국내 주력 IT 산업의 회복세가 기대됨
 - 반도체 : 2008년 하반기 들어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조정이 일단락되면서 D램 및 낸드플래시 수요 회복, 신제품 출시에 의한 패널 수출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 정보통신 : 광대역 장비 등 통신장비 수출 증가, 신흥시장의 교체 수요와 멀티미디어 지원 단말의 보급으로 성장 지속

< IT 산업 전망 >

구	분	2006	2007(E)	2008(E)
IT 기기	생산(조 원)	174.8 (3.5)	184.2 (5.4)	194.5 (5.6)
	내수(조 원)	133.7 (5.0)	141.3 (5.7)	149.7 (6.0)
	수출(억 달러)	905.2 (3.6)	968.6 (7.0)	1,071.3(10.6)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 : 1) () 내는 전년 대비 증가율, 2) IT 산업은 반도체 및 정보통신을 합한 것임.

- (주요 현안) 국내 사업은 금융업과 U-솔루션 위주로, 해외 사업은 전자정부를 위주로 성장이 전망되며, Web 2.0과 UCC 활성화로 인터넷 정보량이 급증하면서 IDC 등의 IT Hosting 사업이 부상하고 업체 간 특화전략이 가속화 될 것임
 - (국내 사업) 금융업 비중 확대와 U-매출 증가 : 국내 사업은 금융사업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유비쿼터스 관련 솔루션의 매출 증가가 예상됨
 - 금융 IT 서비스 산업의 수요 증가 : 금융권 차세대 IT 프로젝트 추진, 자동합법 이후 금융사간 합병으로 정보시스템의 통합, 신규개발 수요가 늘면서 금융 IT 서비스 산업의 재도약이 기대되며 상대적으로 공공은 축소
 - U-매출 증가 : U-City, USN, RFID 등 유비쿼터스 관련 인프라가 완성되면서 유비쿼터스 솔루션 개발 수요가 늘고 관련 매출의 성장세가 전망됨
 - (해외 사업)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 진출 가속 : 해외 전자정부 구축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내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 진출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
 - 해외 정부 IT 컨설팅 진출 가속 : 인도네시아 경찰청 프로젝트 등 해외 전자정부 관련 컨설팅 의뢰가 집중되면서 수주 금액도 1,500억 원에 달하는 등 향후 국내 IT 서비스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 구축사업이 가속될 것임
 -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 진출 가속 : 삼성 SDS는 2007년 10월 3일 글로벌 IT 컨설팅 분야 3위 업체인 캡제미니(Capgemin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는 등 국내 시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신수익원과 차별화 전략 가속) : Web 2.0, UCC 활성화로 인터넷 정보량이 급증하여 데이터 처리를 아웃소싱 하는 IDC 운영(IT Hosting 사업) 운영수익이 늘어날 것이며, 중소 사업자는 특화전략에 더욱 집중할 것임
 - 국내 IDC(Internet Data Center, 서버호텔) 구축 경쟁 심화 : 삼성 SDS, KT는 2007년 말~2008년 초에 대규모 자사 IDC를 개소할 예정이며, 동부 CNI 등 중견 IT 서비스 업체들 또한 자체 전산센터 구축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내 IT 대행 시장의 고객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특화사업으로 활로 모색 : 삼성 SDS와 LG CNS 등 2강 업체를 제외한 중소기업은 국방솔루션의 쌍용정보통신, 해운솔루션의 현대 U&I처럼 특화전략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유비쿼터스 특화 솔루션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임

6. 자동차 산업

2008년 자동차 산업 경기는 내외수 동반 증가 기대 속에 국내 노사관계 불안, 소형차 중심의 수입차 판매 증대 등 불안 요인이 상존

○ (2007년 현황) 소비심리의 점진적 회복에 의한 내수 증가, 국산 자동차의 품질 및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수출 호조 유지

- 내수 회복 : 소비 심리 개선, 하반기로 예정된 차종별 신모델 출시 등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 회복세가 진전
- 수출 호조 지속 : 2007년 하반기에 내수 시장에 주력해 온 쌍용, 르노 삼성 등이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출 호조 지속. 특히 경기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 중동, 동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임

○ (2008년 전망) 국내 경기 회복의 가시화, 세계 경제의 성장세 지속에 따라 내·외수 모두 증가할 전망이나, 불안한 노사관계, 소형차 중심의 수입차 판매 증대 등의 위협요인이 상존

- 내·외수 증가 : 2007년 1/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가 2008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세계 경제 또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외수 동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자동차 산업 전망 >

(단위 : 천대, %)

구 분		2006	2007(E)	2008(E)
내수		1,164 (1.9)	1,200 (3.0)	1,242 (3.5)
수출	완성차	2,648 (2.3)	2,800 (5.4)	3,004 (7.3)
	KD (Knock Down)	1,067 (33.9)	1,300 (21.8)	1,687 (29.8)
생산		3,840 (3.7)	4,000 (4.0)	4,188 (4.7)
수입차 판매		56 (21.7)	82 (46.4)	123 (50.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주 : 내수는 국산차 판매 기준, 수출 및 수입은 통관기준, 생산은 KD(현지생산수출) 제외.

- (주요 현안) **新시장 확보 경쟁 심화, 글로벌 경쟁구도의 변화, 세계 자동차 수요의 변화, 환경·안전 강화에 따른 기술개발 가속화가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
- **新시장 확보 경쟁 본격화** : 자동차 공급과잉으로 업체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경제 성장에 따른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BRICs 등에 대한 新 시장 확보 경쟁 역시 치열해질 것임
 - **글로벌 경쟁구도의 변화** : 일본 자동차업체의 부상 및 구미업체들의 퇴조와 글로벌 조달 및 생산 네트워크의 구축이 진전될 예상
 - 세계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은 미국과 유럽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업체들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임
 - 완성차 업체의 해외직접투자로 부품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조달 및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
 - **세계 자동차 수요의 변화** : 생활수준 향상과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소비자 니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컨셉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 미국 시장의 경우, SUV(Sports Utility Vehicle)의 경우 유행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고 CUV(Cross-over Utility Vehicle)²⁾가 최근 인기를 끄는 등 새로운 모델과 컨셉의 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환경·안전 강화에 따른 기술개발 가속화** : 환경규제 강화 및 고유가에 따라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개발과 안전 지향형 시스템개발 가속화될 것임
 -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의 조기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증가할 것임
 - 위성을 이용한 시스템을 자동차에 탑재함으로써 실시간 교통 정보 시스템, 도난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 차량내 전자 메일 및 음성메일 서비스 등이 가능케 하는 텔레매틱스(telematics)³⁾ 시스템 개발이 급진전될 것임

2) CUV는 미니밴과 승용차의 장점을 합쳐 놓은 차로 SUV의 덩치를 줄이고 미니밴의 공차중량을 줄인 고효율 친환경 차

3) 텔레매틱스(telematics)는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과 인포매틱스(informatics)의 합성어로 자동차 안에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 컴퓨터를 이용

7. 건설 산업

2008년 건설경기는 민간부문의 고강도 규제 지속에 의해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현황)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의 경기 위축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약 110조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주체별 : 공공부문은 공영개발 방식의 임대 주택 사업 추진 등으로 수주세가 증가했으며, 민간부문은 강북뉴타운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 등 호재는 있으나,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의해 수요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
 - 공종별 : 건축부문은 주거용 일반 신규 분양 급감으로 위축, 토목 부문은 BTL 사업(임대형 민자 사업)의 추진 확대에 증가세를 유지함
- (2008년 전망) 민간 건축 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 등 토목 부문의 증가로 전체 수주는 113조 원(전년대비 3.0% 증가) 수준으로 전망됨
 - 주체별 :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대규모 개발 계획의 시행 등으로 공공부문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민간 부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주택 보급률 확대, 금리 상승 등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 공종별 : 토목 부문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형 개발사업과 경제특구 이행, 민간의 기업도시 건설 사업 등으로 수주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건축 분야는 주거용 건축 수주 약세로 전체 건축 경기의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임

< 건설 산업 전망 >

(단위 : 조 원, %)

		2006	2007(E)	2008(E)	
주체별	공공	29.5(-7.2)	33.4(13.2)	34.6 (3.6)	
	민간	77.8(15.1)	76.6(-1.5)	78.7 (4.3)	
공종별	토목	28.4(-6.6)	31.4(10.6)	32.7(13.1)	
	건축	78.9(14.3)	78.6(-0.4)	80.6 (2.5)	
		주거	53.3(24.0)	55.2(-3.6)	55.6 (0.8)
		비주거	25.7(-1.2)	23.4(-8.9)	25.0 (6.8)
전체		107.3(7.9)	110.0(2.5)	113.3 (3.0)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 각 수치는 수주 기준이며,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 (주요 현안) 공공 부문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지속될 예정이나 건설업체의 양극화 현상 심화 및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공공 부문 및 민간투자사업 확대 : PF(Projet Financing)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건설투자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2010년대 초반까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보임
 - '05년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민자사업이 향후에도 BTL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양극화 지속 : 향후 대규모 개발 계획들을 감안할 때 규모별·지역별 건설경기 양극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수년간 대형프로젝트 발주, 재개발·재건축 사업 증가, 시장규모 정체와 신규 건설업체수 급증, 지방 주택경기 침체 등이 양극화를 견인함
 - 향후에도 이와 같은 시장 요인이 건설경기에 지속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양극화 현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건설업체의 수익성 저하 우려 : 건설경기 침체와 주요 제도 변경으로 건설사업 전반의 수익성 저하가 우려됨
 - 공공공사 및 민간투자사업은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 방식(300억원 이상 공사)으로 평균 낙찰률은 6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주택공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내역 공시제 시행으로 주택품질 저하, 주택공급 축소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따라서 건설기업들은 향후 시장 변동을 감안한 차별화된 수주 전략이 필요하며, 해외 건설시장 및 고부가 개발 사업 진출 등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 향후 건설경기 주요 변수 >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 공공 부문 및 민간투자사업 확대	- 주택 공급 물량 축소
- 신도시 개발사업 착공	-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 제도적 요인
- 공모형 PF 사업 추진	-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 해외수주 확대	- 건설업계 자금경색 우려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P)	2007(E)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0	4.5	5.1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5	4.4	4.6
	민간소비 (%)	7.9	-1.2	-0.3	3.6	4.2	4.3	4.5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2	4.6	5.8
	건설투자 (%)	5.3	7.9	1.1	-0.2	-0.4	2.5	3.8
	설비투자 (%)	7.5	-1.2	3.8	5.7	7.6	7.5	8.5
대 외 거 래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66	61	-30	-5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10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0	3,700	4,11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3.8)	(11.1)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90	4,05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6.1)	(12.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5	2.8
	실업률 (%)	3.1	3.4	3.7	3.7	3.5	3.5	3.0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5	915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0	5.3